

“삶은 형태며, 형태는 삶의 방식이다”

《앙리 포시용의 형태의 삶》을 읽고

강성원 | 미술평론가

이 책에는 프랑스의 대표적 미술사가 앙리 포시용이 이미지를 보는 미학적 기본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삶은 형태며 형태는 삶의 방식이다”는 그의 주장은 르네상스의 회화관이 폴 세잔을 거쳐 전후 모더니즘 미술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삶과 문화는 ‘형태’ 잡기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표적 미술사가 앙리 포시용이 1930년대 중반에 출간한 《앙리 포시용의 형태의 삶》(학교재)은 포시용이 이미지를 보는 미학적 기본입장이 에세이 스타일로 잘 드러나 있는 책이다.

최근에 번역·소개된 이 책을 접하면서, 필자로서는 너무 늦게 번역됐다는 마음부터 앞설 만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마음이 끌렸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번역돼 나와 그나마 다행이긴 했으나, 이런 종류의 책들은 진작 번역·소개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 미술사가의 독특한 취향 드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이 책의 주제가 서양미술사에 관한 것이긴 하되, 이념이나 양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동안 이 땅에 소개된 미술사에 관한 책들은 연대사적인 것이거나, 인상주의나 입체주의 혹은 모더니즘 등과 같은 사조별·이념별 미술사 인식에 관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미술사의 가장 큰 틀거리들 위주로 서양미술을 이해해왔다. 각론으로서 정교한, 미술사가 개인의 안목과 관점을 맛보게 해줄 만한 책들은 원서로 밖에 접할 수 없었다. 즉 우리 미술계 입장에서 볼 때 대중들은 총론만으로 서양미술을 이해하고, 소수의 전문가들만 각론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일종의 서양미술에 관한 각론의 현장

이라고 보인다. 즉 포시용이라는 어느 미술사가의 개인적 가치관과 취향이 고색창연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반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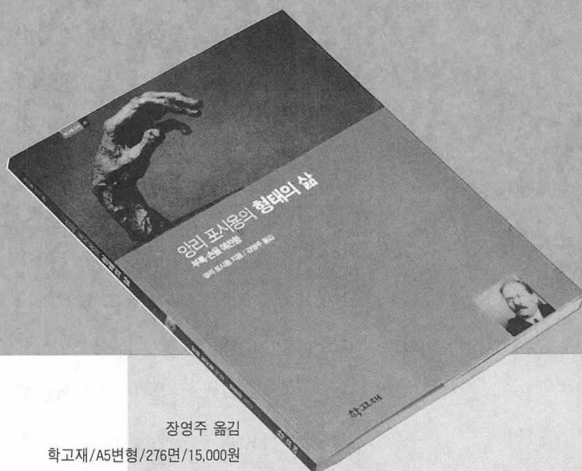
물론 이런 성격의 책이 소개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사가의 ‘고답적’ 글쓰기 스타일을 엿보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 땅에 소개된 여러 미술사 책 가운데서도 독특하고 드문 경우다.

필자는 그의 글에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프랑스를 느낀다. 그리고 글이 ‘고답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형태’를 파악하는 그의 정열이 르네상스 휴머니스트의 인문학주의를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인문학주의를 맛보는 것은 내게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한 먼지 쌓인 골방에서의 책읽기 만큼이나 탐미적인 정신의 행복을 구가하게 해준다.

탐미적인 인문학 정신 살아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번역서건 국내 저자의 글이건간에 이런 류의 고답적이고 탐미적인 인문학주의의 각론들로 채워진, 혹은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특별한 취향과 안목을 보여주는 책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는 지난 백여년간 천박한 이념의 형식 속에서만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느끼며 살아왔던 것이다.

포시용이 이 책을 출간한 1930년대는 서양 현



장영주 옮김
학교재/A5변형/276면/15,000원

대미술이 19세기 후반 이후 인상주의·입체주의 등 여러 모더니즘적 양식의 발전을 거쳐 이미지의 추상화로 나가거나 다다이즘과 같은 반예술 운동을 거쳐나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 포시용은 “모든 활동은 척도 속에서 형태를 얻으며, 거기서 공간과 시간에 속하는 곡선을 새김으로써 식별되고 규정된다. 더 나아가 삶은 본질적으로 온갖 형태의 창조자로 작용한다. 삶은 형태며, 형태는 삶의 방식이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런 주장에서 르네상스의 회화관이 폴 세잔을 거쳐 전후 모더니즘 미술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의 삶과 문화는 ‘형태’ 잡기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든다.●